

일국적 사고에서, 다국적 사고로

출석 번호 : 57

행정학과 201521815 진민주

“아시아 공동체”란 무엇일까? 2018-2학기, 아시아 공동체를 수강하며 “아시아”와 “아시아 공동체”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아시아공동체는 윤강 강의로 매 강의마다 초청된 실무자, 연구자, 교수님들의 다양한 관점에서 “아시아”와 “아시아 공동체”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과목이었다. 각기 다른 입장의 강의를 들으며, 나에게 있어, “아시아공동체”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시아공동체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아시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시아”와 관련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는 2주차 이왕휘 교수님의 “아시아 개념의 범위와 역사”이다. 이왕휘 교수님은 세계 각 국에서 아시아라는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를 시작으로 강의를 열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동아시아, 아시아라는 단어로 동아시아와 아시아 국가들을 묶고 표현하지만, 주변 국가들은 이미 동아시아, 아시아라는 단어에서 벗어나 다른 범주에서의 아시아를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표현하는 “아시아”와 그들이 말하는 “아시아”가 같은 거라 말 할 수 있을까? 이왕휘 교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과 함께 아시아의 유래를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가 아시아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며 나 역시도 아시아 공동체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통일된 “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세계 각 국은 “아시아”를 각자의 입장에서 정의한다. 중국은 중국 중심의 일대일로를 말하며, 일본은 동아시아라는 단어에서 벗어나,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태평양을 말한다. 아시아에 대해 우리는 우리와 다른 생각을 배척하고 자국 중심적 사고를 하기 보다는 공동체의식을 갖고, 다국적 관점에서 아시아 범주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나면 “아시아공동체”에 한 발짝 더 가까워 질 것이다.

그렇다면 “아시아공동체”는 무엇이고, 실현될 수 있을까? 아시아 공동체론을 수강하며 가장 깊게 생각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내 생각은 yes이다. 아시아 공동체는 이미 이뤄지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통일된 사회, 경제, 정치적 정부 정책은 미흡하지만, 아시아 국가 국민들은 이미 소통하고 있다. 이는 이지영 교수님의 “아시아 역내 이주와 문화”를 수강하며, 아시아 국민들의 활발한 역내 이주와 문화 교류가 이뤄지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과거에 비해 아시

아 공동체에 더 가까워졌다. 아시아 공동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화교류만 봐도 알 수 있다. 역내 이주를 통해 사람들은 국가를 벗어나, 동화주의에서 다문화주의로, 다문화 주의에서 상호문화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진보된 “아시아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일국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국적인 시각에서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 박성빈 교수님의 “한일관계의 변화와 전망”의 강의를 들으며, 나는 내가 편협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박성빈 교수는 한국과 일본 간의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일본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그 사실들은 한국인으로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달라, 충격적이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른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적이었지만, 강의를 통해 한일관계에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서 벗어나, 열린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우리는 아시아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 간에 많은 역사적 갈등을 넘어, 하나가 되기 위해 각 국의 입장에서 이해하며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아 국가 간에 오랜 역사적 관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며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일국적 시각에서 벗어나 다국적 시각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국적 시각에서 세계사를 바라보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시아공동체론 강의는 우리가 “아시아공동체”로 나아 갈 수있는지, 그리고 “아시아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 지 생각하게 해주는 강의였다. 또한, 아시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리더십과 각 국의 이해관계를 들을 수 있는 유익한 강의였다.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시아공동체는 이뤄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세계공동체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